



남원꿈드림 청소년, 위빙공예 2급 전문가 자격 취득

남원시가 위탁한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정일신은 지역복지 현안 지원사업으로 사회복합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학교 밖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젝트 '청소년 스타트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5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빙공예 2급 전문가 자격취득 과정을 총 16회차로 운영했으며, 참여한 청소년 7명이 모두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으며, 오는 9월 24일 남원시 시민회관에서 개최되는 제5회 남원시사회복지박람회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플래마켓을 열어 직접 만든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2015년도에 첫 문을 연 남원시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직업체험 및 건강검진 지원 등을 통하여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꿈드림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언제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꿈드림(남원시 충정로 72, 3층 센터063-633-19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민축구단, 국가대표팀 유니폼 전달

전미지역아동센터에 사인볼과 함께

전주시민축구단(이하 전주)이 지역아동센터에 국가대표팀 레플리카(유니폼)과 전주시민축구단 사인볼을 후원했다. 21일 전주에 따르면 전미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유니폼과 사인볼을 직접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동화 도의원과 박희자 전미지역아동지역센터장을 비롯해 전주시민축구단 이상현 지도자 김태연 주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유니폼 후원은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에서 진행하는 엔젤저지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주는 그동안 지역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관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인 스포츠 케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무료 축구 교실을 운영했으며, 전주시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축구교실을 대상으로 멘토 멘티도 실시했다. 강동화 도의원은 "전미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전달할 전주시민축구단에 감사드리다"면서 "아이들이 매우 좋아해서 기쁘고, 축구교실도 함께 운영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를 준비한 전주시민축구단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축구단이 더욱 더 발전해 한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블였다. 양영철 감독은 "전주 시민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 "전주시민축구단은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축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연 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좋다"면서 "아이들과 축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희자 센터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전해줘 고맙다"면서 "아이들에게 뜻 깊은 선물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시민축구단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전주종합운동장에서 여주FC와 2022 K4리그 30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장은성 기자



진안 역도스포츠클럽, 전국생활체육대회 쾌거

진안역도스포츠클럽 회원들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경남 고성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전국생활체육대회에서 은메달 4개, 동메달 6개를 따내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10명의 선수 중 여자부에서 최유서(49kg 인상·용상·합계 2위), 임하림(59kg 인상·용상 3위), 조안나(59kg 인상 2위 / 합계 3위), 이화영(64kg 용상·합계 3위)이 여러 메달을 획득하며 파죽지세의 흐름을 이어갔고, 남자부에서는 조은상(109kg 용상 3위)이 동메달을 획득하며 선전했다. 대회 입상자들은 전문선수가 아닌 일반 동호인들로 지난 1년간 기량을 갈고닦아 역도 실력을 연마하여 우수한 성적을 냈다. 최근 역도가 생활체육으로 급부상하며 '크로스핏' 등 다양한 종목에서 역도를 접목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어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진안 역도스포츠클럽은 올해 초 법인설립 이후 규모를 키우고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등 앞으로 더 좋은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박무성 진안역도스포츠클럽 사무국장은 "우수한 지도자와 함께 진안군 역도 저변확대와 유능한 인재양성에 힘쓰겠다"며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엘리트 선수 육성은 물론 국민 건강증진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박병춘 전주교대 총장, 임용시험 응시 수험생 격려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21일 2022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을 격려하는 이벤트를 가졌다. 이에 따르면 이날 박병춘 총장은 대 학 도서관을 직접 찾아 수험생들에게 간식을 나누주며 임용시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응원과 자신감을 북돋아 줬다. 전주교대는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초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펼치고 재학생들의 인성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박병춘 총장은 "임용시험 준비에 막바지 열을 올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부터는 건강 관리와 체력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시험 당일 개인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응원했다. 한편, 2022년 전라북도 초등교원 임용시험은 1차 11월 12일, 2차 2023년 1월 4~6일까지 실시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체육회-한국체대, 체육발전 업무협약 체결

전북체육회와 한국체육대학교가 체육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1일 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강선 회장과 안용규 총장이 참석했다. 이에 양 기관은 △선수 경기력 향상 도모 및 스포츠 기술 교류 △중복별 합동·합숙·전지훈련 상호교류 △체육 관련 공동연구 및 정보 교환 △협력과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안용규 총장은 "전북체육회와 업무협약을 맺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전북 체육 발전을 넘어 한국 체육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가 원만큼 전북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강선 회장은 "체육인 양성의 산실인 한국체대와 협약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협약은 유가적인 연대를 확립하고 양 기관의 협력과 우호 증진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매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협약은 유가적인 연대를 확립하고 양 기관의 협력과 우호 증진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밀라노에 'HATCH 글로벌거점센터' 구축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20일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밀라노 지회(지회장 박광일)와 글로벌 산학협력 거점센터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 HATCH 글로벌 거점센터 현관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LINC 3.0 사업단 주송 단장, World-OKTA 밀라노지회 박광일 지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주대는 2018년부터 월드옥타 지회와 협력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HATCH 글로벌거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 런던(영국), 바르샤바(폴란드), 이스탄불(튀르키예), 비슈케크(키르기스스탄), 파리(프랑스), 프랑크푸르트(독일)에 거점센터를 설치했다. 이번 밀라노(이탈리아)에 새로운 글로벌거점센터를 구축으로 총 7개로 확대됐다. 주송 단장은 "우리 대학에서는 글로벌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전북지역 식품기업 무역상담회 개최 등 지역기업과 졸업생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글로벌 거점센터를 구축해 전주대 학생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LINC 3.0 사업단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 자살예방시행계획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9월 7일 2022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우수 기초자치체로 선정되어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자살예방의 날(9.10일)을 맞아 2021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평가하여 자살예방 등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한 지자체중 우수 자치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김제시는 지역사회 내 경찰, 소방관, 이·통장, 사회복지실무자 등을 생명지킴이 활동가로 양성하여 자살 고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찾아가는 마음행복 상담소를 운영하여 정신건강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생명사랑 교육,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사례관리, 생명사랑 실천가게 지정으로 자살수단(농약 번개탄) 판매인식개선 그리고 생명사랑 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특히 전북 최초로 24시간 응급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자살위험군 발견부터 사후관리까지 윈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65일 현장출동으로 자·타해 위험에 신속 대응하고 있어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은 "생명사랑 지역문화 정착과 생명존중 의식 향상을 통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김제시를 만들어야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군, 흥삼축제 부스 참여자 교육 실시

진안군은 21일 군청 강당에서 2022 진안흥삼축제 부스 참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부스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부스 운영자들은 3년 만에 현장에서 치러지는 축제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방문객들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한마음 한뜻으로 의견을 모았다. 읍가를 열리는 흥삼축제는 흥삼관매관, 수삼관매관, 로컬푸드관 먹거리관 등 7개관에 총 80여개의 부스가 운영된다. 군은 교육을 통해 부스 운영 준수사항, 문화누리카드, 친절·위생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운영자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흥삼축제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흥삼축제장에서 많은 관광객을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 설렌다"며 "교육을 토대로 열심히 준비해 깨끗하고 친절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 진안흥삼축제는 10월 7일 진안고원시장에서 진행되는 흥삼노래자랑을 시작으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흥삼을 주제로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 등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로 펼쳐진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유통을 사랑하는 모임 성금100만원 기탁

남원시는 유통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이웃돕기 성금100만원을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단체는 유통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관내 농협소속 산지유통센터 직원들 모임이며, 회원 간 협동증진, 조합 상호간 정보교환 및 친목 등을 목적으로 활동 중이다. 방마자 주민복지과장은 "시민들을 위해 한분 한분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기탁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창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21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일반음식점 연가(완산구 어른로 28)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창 수여 및 현판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은 영업주의 자율적 안전관리로 관계인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제도로 종업원 대상 정기적 소방교육·훈련 실시 및 자율안전관리 수행 여부 등을 평가하여 선정되며, 이번 우수업소로 선정된 연가는 도시사 표창과 향후 2년 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을 면제 받게 된다. 김장수 서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통해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 도내 우수기업 모니터링단 발대식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이상행)는 21일 스타센터 235호에서 도내 우수기업 모니터링단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내 우수기업 모니터링단은 기업탐방, 채용설명회 등 지역 내 우수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산학협력 구축 및 우리 대학 학생 취업을 제고 목적으로 출범, 도내 우수기업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기업 홍보자료 제작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에 참여하게 된 최세련(경영학과 4년)학생은 "기업탐방,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내 우수기업을 바로 알고 도내 청년층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브이로그, 카드뉴스 제작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상행 센터장은 "단순한 홍보가 아닌 책임과 목적의식을 갖고 자신의 취업의무를 키우면서 도내 우수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